朝鮮日報
第二夕刊
三十一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伊太利來週中參戰?
兩巨頭間密約成立
챠노外相、英佛大使에게 通告乎

【倫敦三十日發同盟】프랑스로뷔이 獨軍의 來佛侵入으로써 終局에 가까워짐에따라 伊太利의 參戰時期가 世界의 視聽을 모으고있는데 當地消息通에서는 英伊關係가 急速히 惡化하고있는 現實을 들어 伊太利의 參戰은 大略來週中이리라는 觀測을 하고있다 그러고 그理由로서는 다음가튼 諸點을 들고있다

一、못솔리니首相은 英國政府의 經濟封鎖放棄에 關한 提案을 拒否하엿기때문에 英伊關係는 惡化의 一途를 걸어 伊太利의 參戰을 阻止할 方法이 업서진 것

一、무솔리니首相은 루즈벨트米大統領의 戰爭不參加勸告에 對하여 伊太利는 獨伊軍事同盟의 誓約에 따라 獨逸을 全的으로 支持한다고 回答하엿다

一、챠노外相은 兩國大使에게 通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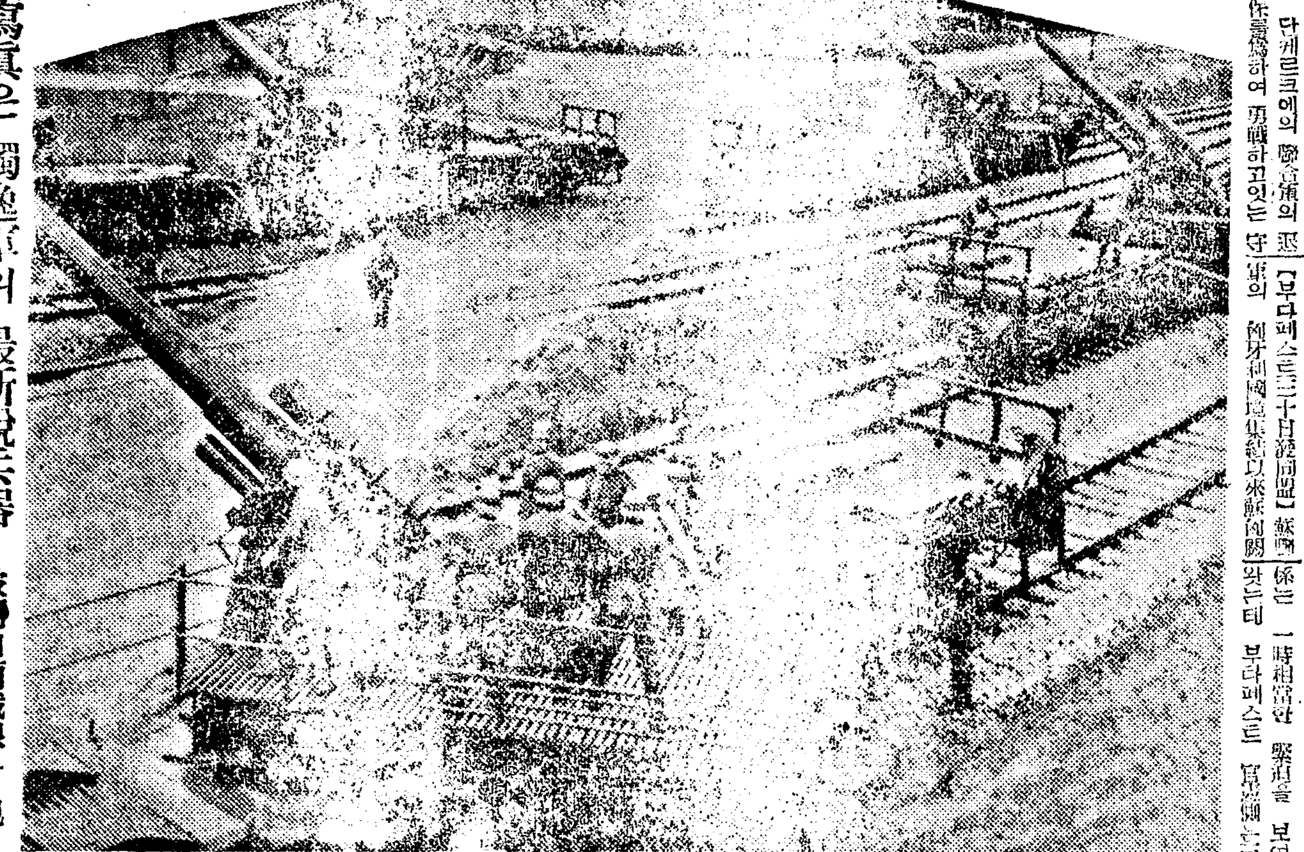
伊太利參戰發表問題協議?
히總統과 宣傳相間에

英칼레死守部隊賞讚

【倫敦三十日發同盟】英國陸軍省은 三十日夜 칼레는 依然英國軍守備隊에 依하여 死守되고잇다고 言明 敵의 猛烈한 砲爆擊을 무릅쓰고 다케르크에의 聯合軍의 退路를 確保하기爲하여 勇戰하고잇는 守軍의 功勞를 賞讚하엿다

蘇匈國境에서 蘇聯兵撤退

【부다페스트三十日發同盟】蘇聯、洪牙利國境集結以來 蘇匈關係는 一時相當한 緊迫을 보여왓는데 부다페스트 軍當局은



寫眞은 獨逸軍의 最新銳兵器—波蘭白蘭戰線과 現北佛戰線에서 使用하고잇는 最新式臼砲와 列車砲

獨軍、勇士에 行賞

【伯林三十日發同盟】今番獨軍의 白蘭作戰에서는 所謂『히틀러戰術』에 依하여 各兵科部隊는 挺身敵中깊이 侵入하여 機動作戰을 展開하여 多大한 戰果를 거두고 各軍團司令官、師團長等은 率先하여 戰線에 臨하여 自身陣頭에서서 指揮하고잇기때문에 殊勳을 세운이가 만타

近代戰術 電擊戰法 (下)
그發生과 成長過程

이러한 조그마한 經驗가운데서 獨逸軍은 敗戰의 原因을 차저 어떤 戰法을 채로 처버리고 남은것을 추리어가지고 한層의 새로운 戰法을 發見하엿다

◇

戰車戰鬪法에 關하여는 英佛兩國間에 對立이 잇섯다

◇

다음에 新兵器의 발달한가지인 飛行機를 大規模의 奇襲에 使用하는 理論을 세운것은 伊太利의

攻擊戰에 잇서서는 어떤 火力을 主體로하는 重厚한 攻擊力이 必須條件이어서 攻擊力을 無視하는 快速作戰은 危險性이 만타

一、戰車、飛行機는 獨立으로

聯合軍撤退順調
英佛海峽서도 猛活躍
英國情報省에서 發表

【倫敦三十日發同盟】英國情報省은 三十日發表

一、南北으로부터 挾擊한 獨逸軍의 壓力은 더욱 增大하엿기 때문에 프란드르戰線의 英佛軍은 다시 海岸方面으로부터 退却하게되어 海岸地區에서는 激戰이 繼續되고잇다

一、撤退는 極히 巧妙且大膽하게 遂行되어 後衛部隊가 激戰

一、그리고 英軍은 솜므河以南에서佛軍과 密接한 協力하고잇다

佛軍着着移動

【巴里三十日發同盟】佛軍司令部三十日發表

一、프란도르、아르토아戰線에서의 佛軍은 敵의 猛烈한 戰鬪를 相對하며 司令官의 命에 따라 着着移動을하고잇다

一、솜므戰線의 거의全線에 걸쳐 佛軍은 有利한 戰鬪를 展開하고잇다

落下傘部隊虐待에 獨逸側報復通告

【伯林三十日發同盟】獨逸政府는 佛蘭西軍에게 被捉된 獨逸飛行士 及落下傘部隊가 虐待를 받고잇다는 報에 激怒하여

湯淺內府辭任實現?
後任엔 平沼、木戶氏等有力

平沼氏는 昨冬以來 健康이 조치못하고 最近에는 痼疾의 肺炎

英驅逐艦三隻沈沒

佛軍團長捕虜

【伯林三十日發同盟】獨逸軍司令部

巴里攻略은 쉽다
나치스首腦部豪言

【紐育三十日發同盟】프란도르戰線의 決定的勝利로써 終了시키고잇는 獨逸軍의 다음攻擊目標는 倫敦이나 巴里냐하여 世界의 視聽은 이곳에 쏠리고있는데

今日閣議에서 決定
身分保障令의 撤廢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三十一日의 閣議에서 官吏制度改革中身分保障制의 撤廢及 日系官吏의 待遇問題를

和蘭政府、在米資金
保護管理通告

【華盛頓三十日發同盟】米國財務省은

第五次重慶爆擊

【香港三十一日發同盟】重慶으로부터의 情報에 依하면 三十日午前日本空軍은 重慶地區에 對하여 第五次의 連續大爆擊을 敢行

英佛軍希上陸計畫
伊太利紙事實暴露

레오폴드三世
王權正式剝奪

獨軍進擊阻止中
英佛軍프、카兩地區서

日本網魚網配給統制

二次軍豫算
十億弗要請

【華盛頓三十日發同盟】

我使節團제노아着

【제노아三十日發同盟】中部及北部伊太利를 親善中인 我訪伊經濟使節團은 三十日中伊의 古都괴사、리보르노兩市를 歷訪後午後七時北伊의 港都제노아에到着

歐洲政局日誌

五月一日 伊政府 英國에內閣變 ◆英艦隊 大擧地中海로

二日 英政府地中海 航行停止

三日 獨軍노르웨이北部戰線

五日 諾威外相英國渡倫

六日 히總統、瑞典王間 電報交換

十日 獨軍、和、白、盧三國侵入

十四日 和蘭軍總司令官、命令

十七日 獨軍브뤼셀占領

廿日 獨軍아미앵占領

廿八日 白耳義軍 無條件降伏

職員健康保險
六月一日부터實施

八面鋒

創氏制度는 果然無意味한일가

氏解說設定及改名手續

고구마苗 賣出!!

朝報國

賣家

家屋賣買

招請

洋服 三洋舍로 京城府

論語

월경

建築請負와修理

女子事務員採用

特約店募集 光榮の味

安岩莊住宅賣約開始

高級住宅犧牲的廉價

朝鮮工營株式會社責任經營住宅第一期竣功

交通 敦岩町停留場서五分 競馬場入口서十分京城府敦岩區劃整理區內요 都心連絡에서三十分

水道 時局下物資難을克服하고各戶에 完備하엿습니다 電燈도勿論完備하엿습니다

概況 背後에綠陰이오 南傾斜日光과空氣清涼하며 京城府區劃整理住宅地임으로 道路와下水가完備하여잇스며 附近은小學校中學校專門學校等이잇어서 子弟敎育上最優良地입니다

建築 當社가第一로자랑할點은 七尺四方一間을尊重하고 實生活과建築美를恒常細心하여지은집입니다 第二로는 京城府區劃整理住宅地임으로道路下水完備하여잇습니다

價格 壹戶九、五間부터十五、五間까지 壹間當四六〇圓부터 四九八圓까지 建坪一坪當三七〇圓

申請所 京城府鍾路二丁目八番地(長安ビル三階) 朝鮮工營株式會社 電話光化門 三二一七 九八八四

府內の話題は
(六月六日·七日·二日間限り)
◎唄ふ轟夕起子とそのバンド
(六月六日特別公開)
◎日活多摩川總動員『歷史』
(六月七日特別公開)
◎パ社超大作 總天然色『○の人々』

本社蘿島支局 電本局 三八八六番

金密輸出取締强化

警官稅關吏外에 民間도 動員

密告者의 賞與金規程을 改正 ＝六月一日부터 實施＝

[illegible]

砂糖配給에 證票制

六月一日부터 印章밧고 小賣

砂糖配給組合과 各百貨店의 協議로 實施

일반수요자(需要者)들의 편리 운운을 말하는 부내백화점들이 멀정하게소매하라는 사탕을 파자상들과 연락하여 사탕을도매 하는대신 만든파자는 백화점에 먼저 달라는 뻔뻔한 짓을하여단 물을 빨아먹은 사건이경제경찰에 탄로되엇음은 기보와갓거니와 부내에들어오는 사탕을도마라가지고잇는 장곡천정(長谷川町)중도상점(中島商店)에서는삼십일다섯곳 백화점에 대하여다음과가치 사탕배급의 공평한 판활을 위하여 배급표(配給證票)를 만들어두고 일반가정의수부에 한해서만 팔라고 권고문을 발송하엿다

그리하여 유월일일부터 백화점에 설탕을 사려가는사람은 도장을 가지고가야한다 즉부내 삼월(三越)백화점에서 소매용으로 배급받은 설탕중팔할을 파자상사에게 넘기고파자와『링크』를한후 나머지이할을 소매하엿다는 부정매매사건이발생한데비추어 부내장곡천정(長谷川町)이십일번지 조선중앙사탕배급조합(朝鮮中央砂糖配給組合)에서는 삼십일오후부내 다섯 백화점 판계자와 회합하여 이상과가튼 불공평한 배급이 업도록 다음과가치 협의결정을하엿다 즉 유월이일부터 각백화점에서는 장부를 만드러두고 설탕사러온 사람의 주소성명 직업을 기입한후 도장을 밧기로 되엇다 이와가치 의선백화점이 등록제(登錄制)를채용한후 그성적을보아 배급조합에서는 다른 소매상에게까지 심상소학교 졸업정도의수학 역시 이때는 한과시험을 치르기로되엇다

少年飛行兵 十月에 試驗

【東京電話同盟】동경항공학교에서는 매년사월 혹은 시월에채용하는생도를 다음과가치 모집한다는것을 지난달 삼십일부로써 고시하엿다 지원자격은 대정십삼년사월일일부터 동십오년삼월일일까지에 출생한자로서 원서제출기한은 오는시월삼십일까지이며 시체검사는 명년일월이십사일부터 이월사일까지이며 시체검사에 합격된자에한하여 [illegible]

紙幣뭉치로 鄕客낙거奪金

광주(光州)출생 주소부정 전 [illegible]

江西電話期成會

【江西】강서시민이 수년전부터 갈망하고잇던 강서시내전화 설치에 관하여 지난오월이십칠일 오후사시부터 강서면사무소에서 강서면장 주최로 강서판민일동이 회합하여 편민일동이의 견을 교환한결과 강서전화설치 기성회(江西電話期成會)를조직하고 역원을 다음과가치 선정하고 전화설치를 당국에교섭하기로하엿는데 일반시민은 하루바삐 실현되기를갈망하고잇다한다

會長 [illegible] 副會長 [illegible] 外十七名 常務委員 佐藤治外一名

上半期"뽀너스"를 貯蓄에 吸收方針

五億貯蓄强調週間(六月十五日同卄一日)

[illegible]

夜市商人背後衝擊

黑幕고무靴不正商摘發

[illegible]

渡支者에 必要한 三種混合지부스注射

[illegible]

國防獻金

[illegible]

紙器工場에 火災

損害는 約卄一萬圓

[illegible]

廢品回收千萬圓

今年은二千萬圓目標로突進

[illegible]

物資缺乏은"不言主義" 勝利는獨人의信念化

白國空襲四日前脫出, 今朝金載元氏歸還談

독일의 구타파에서 백이의 화란(和蘭)양국에 독일의 전격부대가 진격하기바로 사흘전, 백이의를 탈출하여 독일로나와서 그동안 서백리아를거처 조선에도다오이 가잇다 이는 함흥(咸興)출생으로 백이의『안트웹』에서 안트웹대학 동양학연구소원으로 잇든 청년기예의 고고학자 김재원(金載元)씨이다 씨는삼십일일 새벽세시반 경성역도착열차로 경행하여 동란의 구타파 천지의 긴장과 불안과 평화를그리는복잡한 분위기에아직도 사로잡힌듯 마음이진정치 안흔낫색으로 독일군의 백란진격전후를 다음과가치말하엿다 (사진은 김재원씨)

내가백이의를떠나기는 독일이 백이의와화란에쳐들어가기바로 사흘전이니까 오월칠일이엇던가요 물론 그전부터독일이 백란지방을 처들어오리란 소문은 대개짐작은 햇스나 [illegible] 이보다 전에 전구라파가 놀라기는 사월초순에『덴마크』와『노르웨이』를 하로아침에 처들어갓슬때이엇습니다 새벽다섯 시경에 일제히 처들어가점령하엿다는 소식을 오전열시경에아럿는데『노르웨이』해안이라면 영국의 감시하에잇는곳으로서북쪽『나르빅』까지 일거에 점령하엿다는것은 처음에는 미들수가 업섯든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고 보니 전구라파가 놀라지 안흘수업섯고 또 이사실은 독일의그 다음 이작전이 화란·백이의의 불안을 주게되는 점에서 더 놀라지 안흘수업섯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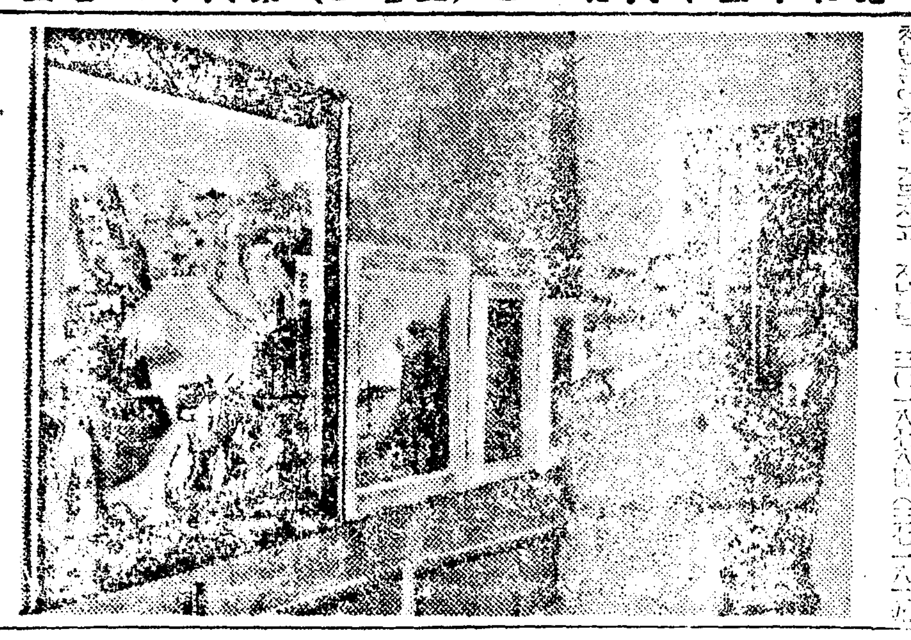
◇

내가 백이의의 불안을느끼며 독일로 건너와서는 독일의 가장 중요한 중공업지대인『루울』지방에 한주일 머물럿는데 그동안에독일군의『백란』진격이 잇섯습니다 그야말로 번개가튼 진격이엇든모양인데 하로밤동안에 화란백이의 불란서등 국경지대의비행장 [illegible] 또는점령하엿다는데 마지노선의 연장인 백이의와 독일간의 국경요새선을 [illegible]

[illegible]

大野總監美展鑑賞

기대하든조선미술전람회는 모든준비가 꼿나고 오는 일일부터 일반에게 공개하게되엇는데 삼십일일오후 한시반경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은 이가(李家)사회교육과장 신원문서과장(信原文書課長)과가치 먼저전람회의 관람을 하엿다 (사진은미전관람의대야총감)



有力한嫌疑者로 문둥病患者一名逮捕

定平少女慘殺事件의續報

[illegible]

돈안내고술먹고 칼빼들고죽자고

빠ー 新羅에서 蠻犬의 [illegible]

[illegible]

柔道와 籠球選手의 諸費用을 自擔

裵勝井上氏의 美擧

【襄陽】양양경찰서에서는 각군대항 유도대회에 이번연승으로 강원도에서는 당당한기세를 [illegible]

오늘의 라디오

[illegible]

伊選手를 招聘 日滿伊競輪

日本自轉車聯서開催計畫

[illegible]

西朝鮮野球리그 平實3 2平鐵

[illegible]

關西大會野球 게임日程決定

[illegible]

巨人軍이 連霸 大리그春陵閉幕

[illegible]

伯林對葡牙利蹴球 獨逸軍이 快勝

[illegible]

首位 米國職業野球戰績

드자ー스

드자ー스	20	8	[illegible]
렛 즈	20	9	[illegible]
자이안스	17	12	[illegible]
카브스	18	15	[illegible]
피리ー스	11	15	[illegible]
카지날스	11	20	[illegible]
뿌레뿌스	9	17	[illegible]
페이렛즈	8	20	[illegible]
에트데틱	12	18	[illegible]
뿌라운스	12	18	[illegible]
양키스	13	17	[illegible]
세네타스	15	18	[illegible]
화잇트 삭스	13	17	[illegible]
타이거스	16	14	[illegible]
인디안	20	11	[illegible]
렛 삭스	[illegible]	9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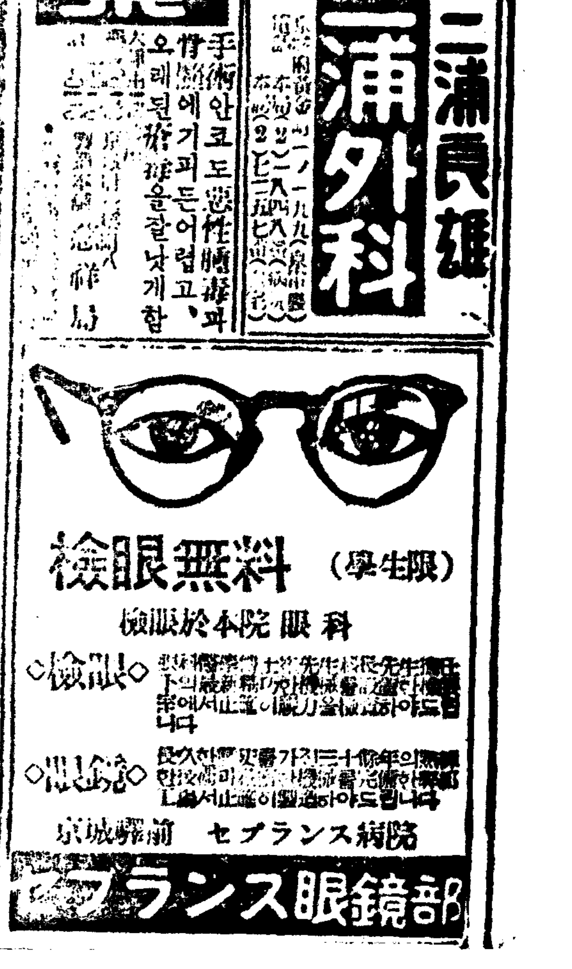
運動界人事·集會

◀韓龍河君(東洋拳鬪王者)과 李德 [illegible] 의 結婚式은 三日午後一時 平北宣川邑內 [illegible] 에서 [illegible] 執行 한다고

餘滴

비타! 꿈가치 단비다! 모내기 [illegible]

[illegible]



石窟庵의 아音 ……(第十九回朝鮮美展特選)…… 鄭鍾汝作

學藝

現代가要望하는新倫理 ②

主體的精神 (下)

徐寅植

一般的으로말하여 自覺하는것은 自覺되는것을 싸고넘어서는 보다高次의全體이다 그러나 그것은

★個我★

와 떠난것이아니고 個我의一面이다 即 個我를 [illegible] 歷史와떠난것이아니고 歷史의一面이다 即 그것은 歷史를 超越하면서도 歷史에內在하는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illegible] 具體的인 自我의立場에서만 歷史社會的倫理의 成立을可能케하는 道德的意識이 成立할수잇는것이다 그러면 이러한全體의 具體的인 自我의立場에서 成立하는倫理的行爲란 어떠한內容을갖는것일까? 그것은 한말로말하면 우리의歷史的社會的生活에잇서서 늘 所與의歷史的社會的條件에 制約되면서도 그것을 否定하고 그歷史그社會에대한 [illegible] 그의 [illegible] 意識하는

★當爲★

를 [illegible] 的인自我의 [illegible] 으로 認識하고 行爲하는 말하자면 道德的意識으로 안바친 歷史的社會的實踐이 아닐까? 다시말하면 그것은 所與된歷史的存在에即하면서도 그存在를 넘어서는 보다높은 歷史的價値의創造를『目的』으로 實行하는 倫理的行爲이라 이러한意味에잇서서 그道德的 [illegible] 을 媒介하는것이 所與의歷史的社會的存在에대한 科學的認識일것은 또한번다시 [illegible] 가잇다 그러한倫理는 [illegible]

★現代★

[illegible] 이와같은 主體的精神의次元에서만提供될수잇스리라생각한다 그러나 또한번말하려니와 現代의職分倫理는 그本質上道德意識의 成立의 基本的前提가되는倫理性의 自由를排除하는데서 精神의主體的 自覺을阻止한다 現代의職分倫理가 精神의自覺을阻止하기쉬운것은 이때문이아닐까?

하나 그러한問題보담도 이곳에서 最後도 指摘하여두어야할點이 한가지 남어잇다 우리는지금까지 現代의 職分倫理의見解를 그대로踏襲하야 歷史를 行論의 順序上諸多의民族社會에即하는 倫理로歐認하고 그우에서 우리의 行論을進展시켜왓다。그러나 現代의職分倫理가 倫理的實體로서 共認하는歷史社會란 곳民族을말하는것이다。그런데

★民族★

이란 [illegible] 하면 [illegible] 歷史社會와 [illegible] 의社會가 아니다。民族은 生活과 分離를 媒介하는社會的組織이 아니고 風土와 血緣 [illegible] 自然의 우에 成立하는 自然的關係에 屬하는것이다 文化와社會는 生命的 [illegible] 더 比喩하는것이니 民族도는 거어도그의 延長으로서의 民族의 社會的成立이 아니면 안될것이다。

끄트로 倫理의具體的問題로서 倫理와技術의關係를 말하고저 하엿스나 紙面의關係로다른機會로미룬다。(五月八日)

★代位★

하다는 社會的結合에서 [illegible] 職能的 [illegible] 하여오면 안될것이다。그러한主體的倫理가 現代가要求하는 民族에 [illegible] 의社會的實體로서는 [illegible] 成立에必要한歷史的 [illegible] 로 우리는現代가要求하는 主體的倫理의 成立하는것이라면 이러한 倫理의 現實主體가될수잇는것은 또한特殊한 歷史的次元에서 成立하는것이라면

代의個我의倫理를「主觀」의倫理라말하고 (實踐理性이란本來主觀的인것이다) 現代의 職分의倫理를『實體』의 倫理라말할수잇다면 (헤겔에 잇서 원래 實體的인것이다) 이것은 正히 主觀과實體의統一인 主體의倫理라말할수잇다。現代의우리가찾는倫理란 單純한 心情의『모랄』도 아니고 單純한歷史의 [illegible]

土曜詩

안개속에서

閔丙均

寂寞가 하나 하나
영롱한 비늘이되여
허우적어리는 나의 지느레미를

나는 대체
이 가난한 光芒을 건느리고
꽃다발처럼 어데로 흘러야한느냐?

슬픔은 記憶이 하나 하나
호롱불이되여
호롱불이 슬픔 記憶이되여
작구만 허우적어리는
나의 지느레미야
나의 옷자락아

이제 그만 꼬리를 흔겨
거리 거리의 燈을
먼 傳說처럼 흘리기로하자

칼칼한 여울속 重濁을 헹으며
한길 날기를 연습하는것은
안개 낀 밤에 배운 나의 또 하나 외로운 習性이란다

當選漢詩

滄東孝選

落花

三等之二

京城府昌信町六四九 李昌薰

一夜風飄萬點花
今春又是減穠華
謝猶戀樹懸枝倒
落恐粘泥掛草斜
脆似紅顏惟薄命
恨如行客遠離家
莫敎兒掃遺香盡
殘片猶粧半面奢

評曰 通篇精切而第四句措辭斜三字不無欲巧反拙之弊

孫子講義

九地篇(八)

凡爲客之道는 深則專하고淺則散이니라

[註] [illegible]

去國越境而師者는 絶地也니라

[註] [illegible]

四達者는 衢地也오

[註] [illegible]

入深者는 重地也오

[註] [illegible]

入淺者는 輕地也오

[註] [illegible]

背固前隘者는 圍地也오

[註] [illegible]

無所往者는 死地也니라

[註] [illegible]

是故로 散地란吾將一其志하며

[註] [illegible]

輕地란吾將使之屬하며

[註] [illegible]

爭地란吾將趨其後하며

[註] [illegible]

衢地란吾將固其結하며

[註] [illegible]

"비엔나" 그리웁다! (一)

荷潭 都宥浩

燕燕于飛 差池其羽 之子于歸 遠送于野 瞻望弗及 泣涕如雨

제비제비 날어간다
나래를 쭉펴들고
우리애기 도라갈에
들에멀니 보내올제
처다봐도 안보이니
눈물이 비갓노라

燕燕于飛 頡之頏之 之子于歸 遠于將之 瞻望弗及 佇立以泣

제비제비 날어간다
우리애기 도라갈에
멀니멀니 보내올제
처다봐도 안보이니
더불제 울면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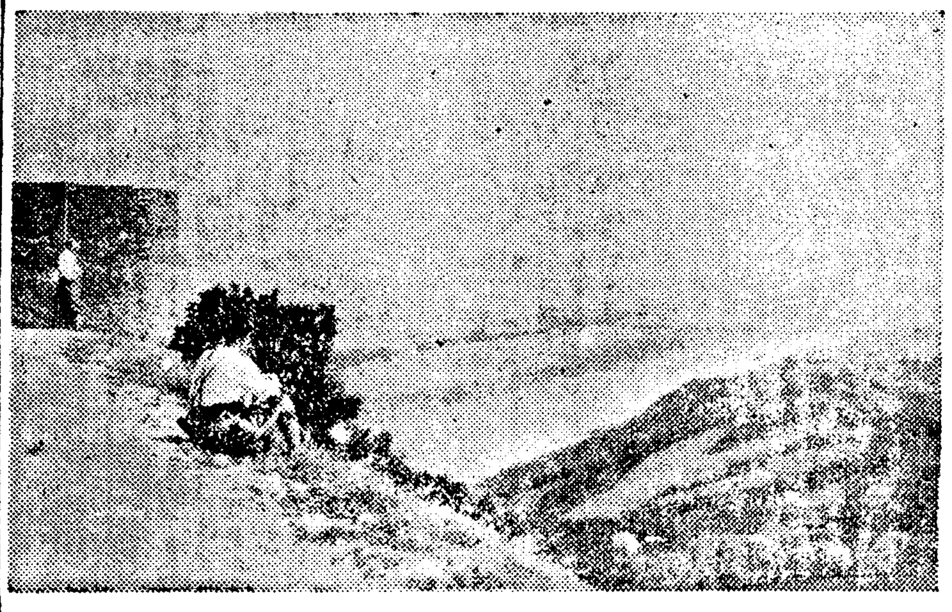
燕燕于飛 下上其音 之子于歸 遠送于南 瞻望弗及 實勞我心

늦우내려 지지귀며
제비제비 날어간다
우리애기 멀니멀니
양쪽으로 돌아갈제
처다봐도 안보이니
이내가슴 외로워라

이것은 毛詩를 故鄕인 陳나라로 돌려보내는 莊姜의노래이다 [illegible] 멀리날어갓거나 나도六洋을건너고 高山을넘어 멀니멀리 故國으로 날어와다。維納을 떠난때는 十月初二日이라 아직은 中秋엿건만(거기氣候는 여기와 相似하다) 故國에돌아오니 어느새이러저럭 벌서 봄도다가고 여름이닥쳐왓다。가을에 떠난 제비는 봄이 오면 돌아온다건만 나래업는 이제비는 한번가채거기서 봄을 마지햇스니 보내든이의 설음은

더하지안홀가!

내가獨逸留學을뜻하고 故國을떠나섯든것은 벌서滿十年도더前일이엿다。그것이어제그제 일갓건만 생각하니 그새어느덧 기나긴歲月은흘러갓섯다。高田獨逸의 風窓生活도 벌서滿十三年이 잇다。『마인』江畔의저녁놀에 醉하야 꿋업는鄕愁를 가슴에 끌어안고 러텀 러텀 자최를감기든 佛郎府時代! 그때는 나는아직二十도 젊신以前의 靑春이엿다。아니그것이 바로이때쯤이아니엿든가。各地를 遊覽하던 젊는이의 무리가그날『라인江』에 몸여서 크리엄『라인』蜂에를 올라가섯고 그리고 그어느날『라인』江邊 白沙場우에서 이리저리 날뛰며



의치고웃고 노래하고 놀던 때그때는 벌서옛날이엿던가? 그때도 아직內心의고개는 한낱青의고것뿐이 아득하게노퍼보이든지 어느새내 그것을 넘은지도 벌서멋해前이엿나?『라인』江마인江가로 옮긴섯다。생각하니 그때도 나는 아직 三十以前이엿섯다。

일놈톱『레오폴』峰에올나 天際에 흐르는『단눕』江을 나려다보는 나의感慨는 엇더햇든가? 江건너 외편으로『빼잔』山어덕이 조금올려보일뿐 그외는 넓는벌판이 쭉벌어젓다。한낱피땅새를 검풀은 아지랑이가몹시하게 쓰다듬어『維多納』湖上에는힌옷세벽이 羊의떼모양으로 稀微하게 어룽기고 龍의비스도 굴곡러 설린『단눕』江이하날에흘르듯 땅으로떨어지듯 어슴어슴한 속으로 머리인가 꽝지인가를감추어버린테를 가만히내려다 볼때는하낫, 둘, 셋, 넷, 世界의『有限』을 꿈꿈든니의『數의觀

念』은 어느덧無限大의저쪽을向하여 쪽버더 다다나가지아니는가!『단눕』江!『단눕』江! 나의理想의한가를 끄니여시 흘르고잇는

『단눕』江! 아니내가『단눕』江을 떠나기몃해前이엿는가!『維納森林』의간되 테 몸이왓스며 포플포플이 새싹이려졸때 나

는그우를 헤엿든이나 거니럿든가! 異國이노는손의 외로운情을 나는거기서 면면이 나지엿이 소군 하엿든가아니거기것나부는이 느려선

속으로 나의純粹이구불러든 러갈때 내가足에서도 生命의情은 포풀도뿐이 올려밀치엿는가! 거기 羅納森林속에서 가는봄을 악

기듯 그들의듯에외로이 숨서잇는 한송이 蒼薇꼬치 내밀고되다있슬때 내속에는 어느듯 眞珠같튼 눈물방울이 구을지안엇든가!

(編者註는 『레오폴』峰에서 나려다보든『단눕』江 외편에안즌것이 筆者)

이야기책과現代 (四)

◁…古典의再認識과 그消化…▷

申龜鉉

『요사이는 거이 業연에 사오나 진진에 책이 나보고져하오대『내놀이라 하압는책은『오죽현길』이 잇사오니 보아 더쉬기한것 업사오며『진대방전』이라 하압는책은 대방 수죄하온 말이 너머 흉번만 하압고 보자하올것 업삽고『언가록』이라 하압는 책은 고음에 드고 보시못한 책이나대강 편시를 이오며 시기하오책 엇더 옵수 업사오나 대에 무삼채 시삽거든 빌니기압소서 비삽나이다』

일후 영하와 연전도하압고 흐 무엇빌다 카오기면 잇는것은 그는쳐오기이다 다못。그것입니이다 이 글편에 대한 답장이다

『기별하오신것은 예도 업사와『추호지』보내오니 이전에 보아겨실듯 하오나 시기 치 아닐듯 하오이다』

以上의 何筒을 읽고 자미스러운것은 다는것이아니다 이야기책』傳說의 편지를 이젼 [illegible] 다 이야기 [illegible] 作에 [illegible]

[illegible]

이것이 곳 六朝時代이분지는 文化一致의 [illegible] 하여 新文化運動이란 새로운 [illegible] 事業은 이것을土台로 發展안것이다。

朝鮮 『이야기책』의 時代的 位置는 以上으로하고 그러면 『이야기책』의 內容은 나 가지로 나눌수잇다 둘 [illegible]

나의卒業論文主題 ①

純粹文藝是非 ①

……問題의飜覆性과時代性……

安含光

(太古)에 言語가 잇섯느냐(?) 또는 業이 잇섯느냐(?)하는, 先哲들에依하여 提起되어진問題는, 元來로 一个도先가 趣히 그어느한편만을 치우처주겨들수잇는 問題가 모다아닌 程度의해결임이 現在和諧되어, 그러한 前理라고 [illegible] 것이다。

다시말하면, 人間이, 動物로부터 區別되는 人間固有의 [illegible] 은, 人間固有의言語와, 內容的 [illegible] 인實踐에잇다。

그야어쨋든 左右間, 이러케 言語가 人間固有의것이라할진 댄, 말이란 두말할것도 업 [illegible]

우리의새로운 發見이아니라, 祖先으로부터 물녀바든것이며, 따라서 祖先이하든 말을 우리도 되푸리하고 잇는것임에 不外하다。

(文化)에잇서서도 原理는 매한가지다。어떤 新舊 文化 [illegible] 新代人들이 만드런는것을 後代人들이 조금더 다듬더, 새로운 [illegible] 무지기도하고, 모다 [illegible] 하면가업슬때 깍거내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잇섯거니와 實로 過去의文化的系統가업다면, 新文化의問題도 問題될것 이다。

勿論 對新文化關係에잇서의 新文化問題의길이 그러케 單純한것은 아니다。

新文化는 舊文化에 即해서 自己를認識하는過程과 舊文化와 對立, 抗爭함에依하여 存在를獲得하는過程과 最後로는그 [illegible] 되어지는것이리라!

그러나 新文化問題 [illegible] 價值批判은 어찌되엿는가에 그의生成過程은 언제나 舊文化의範疇에서 否認되어지는 事實은 否認할수없다

그러기때문에 文化上의 問題는엄마든지

(原理)는 往往이 具體的事實을檢察하기위한 지지못하고, 單純히 一種의 安全辦的尺度로 使用되어 [illegible] 무시하면서 잇는 것갓다。

나는 [illegible] (文化의諸問題) [illegible]

(飜覆) [illegible]

朝鮮美術史要 (十一)

安自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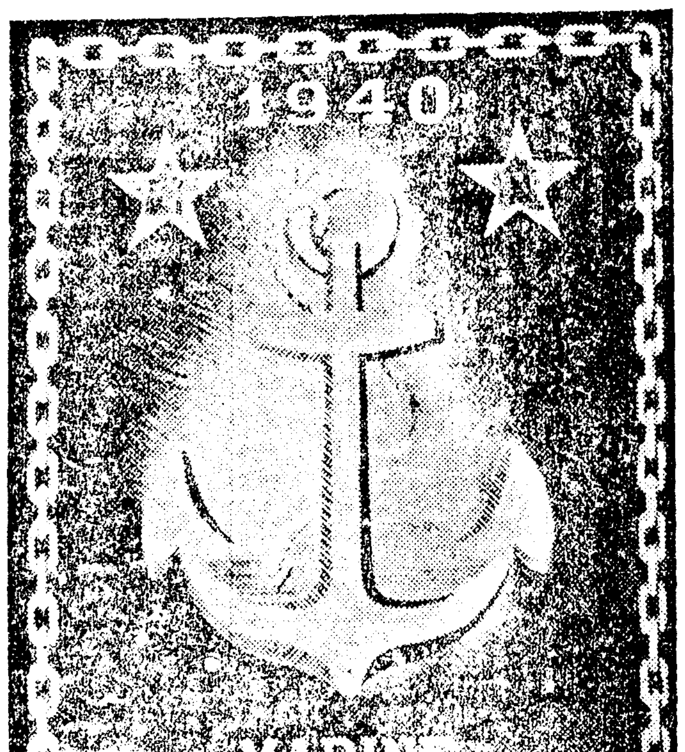
六、李朝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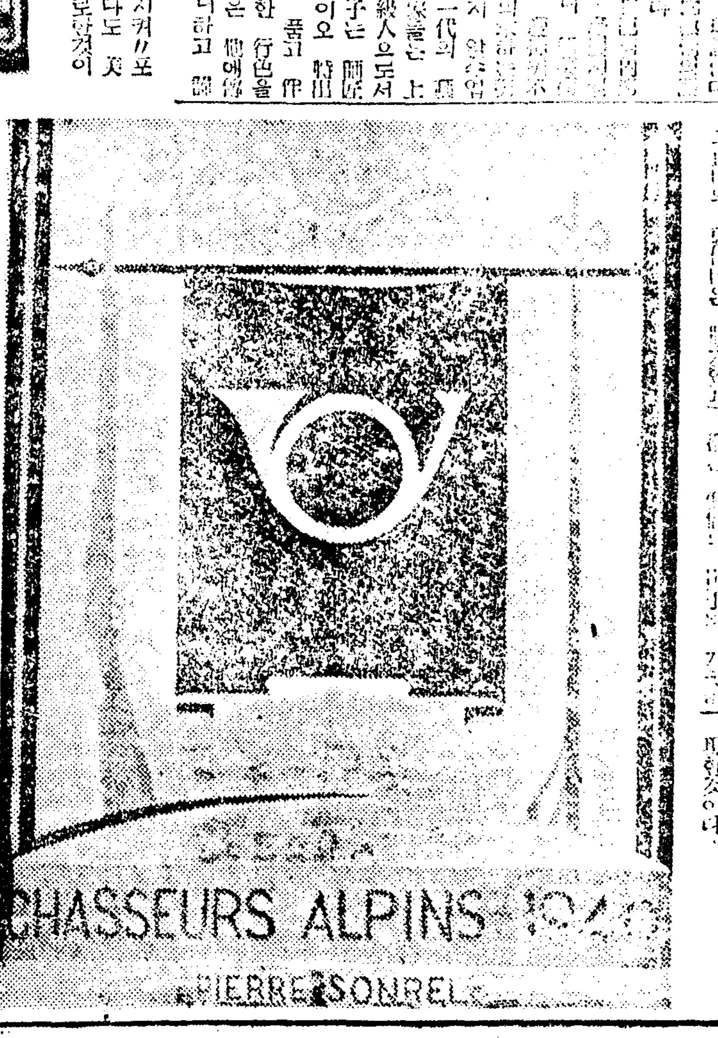
[illegible]

(心境) [illegible]

"포스터—"의戰爭 ③

[illegible]





美術一般

[illegible]

世의귀

蘇聯의新勳章 "낫과망이"制定

[모스코通信聯合] 資本主義國에서도 부러서라고 勞働者의 社會의 [illegible] 에게 [illegible] 「낫과망이」를 制定하여 [illegible] 五角形의별 [illegible]

廢墟롯테르담

[롯데르담同盟通信] 和蘭軍의 頑強抵抗當時에 空襲이가 [illegible] 約一平方키로의 [illegible]

肺臟의表面積

[紐育同盟通信] [illegible]

漢詩募集

滄東孝選

題 綠陰
押 侵韻部
期限 六月十五日

(韻次進呈)

三新進의 中篇小說競載

第一回는 金永壽氏作 새벽바람

金永壽氏

―作者의말―

이 이야기에는 작자 스스로가 구태여 소설을 쓰기위해서의 편리한 수단이라는것을 처음부터 생각지안키로 하엿습니다。그뿐아니라 어 착잡한 이야기를 얽거 나가는 인물의 배치도 아모런 구속을 주지안키로 하엿습니다。그들이 움즉이고 떠들고 지껄이고 웃고 우는 그대로 작자는 스스로 부과 종이를 준비하여 가지고 따라다니기로 하엿습니다。새벽한시의 종소리가정록—우리는 이러한 특수부락에서 비록 한조각이나마 오늘의 방황하는 젊은 남녀들의 서글픈 면모를 엿보게될지도 모릅니다。그리고 그어떠한 출첩고 룩괘한『헤스추어』를 목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그들도 정작 그들의 감존인 어두운 화장실을 기웃거려 볼셧가든 미처 우리들이 상상할수도 업는 『빠—』의 여급들—이러케 쉬사리 한마디로 대표할수잇는 그들이 얽히고 서리어 잇는것을 그들은 솔직히 고백하지안을수 업을것입니다。그러나 작자로서의 익숙지못한 경험과 미약한 문필의연지가지의 장면과 가락가락의 이야기가 꿋모업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 어디가서 매듭을 지어야 독자여러분아페 령을 가지고 이러한 시작도 머리를 들게될지 오늘지 어겨하나만이 봇을 들면서부터의 솔거운 번민이 엇습니다。

崔木朗氏

一 挿畵는 崔木朗畵伯 一

鑛工業原價計算 企畫院原案成立

鑛工業原價計算要綱案 (四)

第三章 原價計算의 方法

第一節 製造原價計算의 方法

第二十六 製造原價計算의 方法 製造原價의 計算은 一定期間에 있어서의 ... 計算하는 手續이다 原則으로서 製造原價要素를 그 要素別로 計算하고 다음에 이것을 그 製造部門 또는 補助部門에 集計하여 最後로 原價部門에서 製品에 配賦시키는 手續을 마치는 것으로 할 製造原價計算은 이것을 個別原價計算과 綜合原價計算으로 區分할 個別原價計算이라 함은 生產을 製造指圖書 또는 製作命令에 依하여 ... 原價를 計算하는 方法이다 綜合原價計算이라 함은 規格을 달리하는 多種의 製品을 製造하는 工業에 있어서 ... 方法에 依하여 原價를 計算하는 方法이다

第二十七 製造原價要素의 分類 個別原價計算에 있어서는 原價要素는 直接材料費 直接勞務費 直接經費 및 間接費로 區分할 ...

第二十八 部門別計算 製造原價要素는 이것을 製造部門 또는 補助部門에 集計한다 ... 第一款 部門의 設定 ...

第二十九 部門費計算의 手續 ...

第三十一 補助部門費의 配賦 ...

牡丹江에서 佳木斯로 經濟中心移行注目

樺木朝郵社長은 東京으로부터 新潟羅津經由 東北滿洲를 視察한 後 三十日에 歸任하였는데 如左히 말한다

內地에서는 日本海汽船의 總會 外船主協會의 解散總會 日本海運協會의 創立總會에 出席하였는데 日本海運協會의 總會에서는 特히 外地船舶을 重視하고 外地船會社의 加入件을 審議하여 同協會를 中心으로한 協力海運統制로서도 注目된다 ... 朝郵에서는 勿論 이에 積極的으로 協力 ... 日本海의 橫斷航路는 ... 滿洲의 經濟的 發展은 ... 佳木斯를 中心으로한 ... 牡丹江의 經濟的 政治的 中心은 牡丹江으로부터 佳木斯로 옮기는 中이라 注目된다

正租買上不抄 移秧이 잘되면 出廻

◇……矢島米穀市場會社長談

朝鮮米穀市場會社가 擔當하는 朝鮮米(正租)의 買上은 依然히 相當한 難航을 繼續하고있는데 米穀市場會社에서는 當局의 穩定價格으로 新規格을 目標로 하여 ... 期의 目的達成에 努力할 決意를 가지고있다 右에 關하여 矢島社長은 如左히 말한다

正租의 集荷는 數量的으로 보아 確實히 不成績인것 가지고 보아 나 살이 적은 곳에서 모으자니 까 쉬운일이 아니다 內地가 一千五十萬石을 모으고자하다가 겨우 六、七百萬石을 모았다는데 이것만으로라도 政府의 持米로되어 責任있는 保管에 依하여 食糧配給의 操作力을 增大코있는것을 생각하면 ... 統制는 먼저 各自가 가지고있는 物品을 提出해서 그것을 食糧的으로 配分하는데있다 食糧配給은 그 우에 保管이라는 일이 되었다 이것은 前米上에도 必要한것이다 現在로는 正租의 出廻가 조금 못하다 新麥期가 되고 移秧이 進捗되면 出廻될것이다

朝鮮送電

朝鮮送電會社에서는 三十日午前十時부터 定時總會를 開催하고
一、當期諸決算案及利益金處分案 議決의 件
一、定款變更의 件 (商法改正에 依한)
一、取締役、監査役全員任期滿了로 改選의 件
을 附議 모두 原案대로 可決 重役은 全部重任(淸水取締役辭任)으로 決定하였다 또 繼續하여 臨時株主總會를 열고
一、倍額增資의 件 (現在資本金一千五百萬圓을 三千萬圓으로)
一、社債一千萬圓限度發行의 件
을 附議 모두 異議없이 可決하였다 同社의 增資及社債發行에 依한 資金은 鴨綠江水電에서 受電하는 데에 必要한 送電設備建設에 充當하는 것이다
當期利益金 三三、五六四 法定積立金 一、六八〇 別途積立金 二〇、〇〇〇 配當(年七分) 九、八〇〇 後期繰越 二、〇八四 (單位圓)

弘中增資認可

弘中商工의 倍額增資(一百萬圓)은 本年度 增資의 臨時總會에서 可決되어 當局에 正式認可申請中이던바 三十日附로 正式認可가 있었다 新株式 二萬株는 六月一日 現在의 株主에 對하여 割當하기로 되었다

物產協會

朝鮮物產協會에서는 一日午後二時부터 京城商工會議所에서 定時總會를 열고 左記件을 附議
一、昭和十四年度事業報告、決算豫算案認件
一、東京、新潟、敦賀에 出張所設置件

日銀券膨脹 卅四億圓肉迫

月末關係로 日銀券發行高는 膨脹을 거듭하여 三十一日發行高는 三十二億九千九萬二千圓으로 前日에 比하여 億五千九百七十六萬圓이나 激增되어 三十四億圓에 肉迫하였다
또 鮮銀券은 四億二千百九十四萬五百二十五圓十錢으로 前日에 比하면 三千一萬四千三百二十二圓의 收縮이었다

會社總會一束

東拓鑛業

東拓鑛業에서는 三十一日午前十時부터 定期株主總會를 東拓支店에서 開催하고
一、當期諸決算承認件
一、同上利益金處分案決件
一、定款變更件 (商法改正)
一、取締役及監査役의 報酬變更件
一、取締役의 他同種會社取締役兼任承認件
을 附議하여 모두 原案대로 可決하였는데 利益金處分은 如左하다 (單位圓)
當期利益金 二七、〇〇〇 前期繰越 ...

京春鐵道

京春鐵道에서는 卅一日午前十時부터 第八回定時株主總會를 朝鮮殖産銀行集會所에서 開催하고
一、諸決算營業報告承認件
二、利益金處分案件
三、定款變更件
四、鐵道財團設定件
五、同一名監査役補缺選擧件
六、監査役二名任滿了改正件
七、故監査役淺野太三郎氏遺族에게 贈하는 慰勞金件
을 附議하여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同社의 增資及社債發行에 依하여 充當하는것 ...
當期利益金 ... 法定積立金 ... 後期繰越 ...

機械의 設備制限

鐵鋼消費規正코자 規則公布를 研究中

總督府에서는 鐵鋼消費의 規正에 依한 增産을 計劃하자는 것으로 機械設備 制限을 考慮中으로 目下研究中인데 右規則은 主로 鐵鋼을 生産하는 工場에 對하여서는 工作機其他 設備를 制限하는 것으로 右規則制定의 目的은 生産其他時局에 必要한 ...

英本土危機에 對備 國防全權法成立

本月中旬 獨逸機械化部隊가 마지노線을 突破하였다는 報道가 世界의 耳目을 聳動시켰다 이 形勢는 極히 不利한것이었으며 英本土의 危機가 切迫하게되었다 英國政府는 廿二日早朝에 이르러 數百年의 傳統을 가진 自由民主主義體制를 全然放棄하고 國家權力에 依한 國民一致의 總動員體制를 取하게되었다 國家總動員法인 國防全權法의 成立이 이것이다 이 全權法의 內容은
一、一九三九年의 國防非常大權法의 效力을 一九四一年八月까지 延長함
一、皇帝에 對하여 勅令으로써 國家安寧의 確保 國土防衛 治安維持 戰爭遂行 또는 社會生活에 必要한 物資 勞力維持를 目的으로하여 各個人 그 勞力及 財産을 皇帝의 處理에 委任하는 權限을 賦與함
一、政府에 對하여 戰爭開始後 議會를 通過한 法律을 改正하는 權限을 賦與함
의 三項目으로되어있고 右中 第三項에 있는 皇帝에 對하여 賦與된 權限은 ...
一、英帝國內外에 있는 모든 英國船舶及航空機에 對하여 本法의 規定을 適用함
一、本法의 規定은 勅令에 依하여 植民地及保護領에 擴張適用할수있음
一、本法의 有效期間은 一年으로 ...
一、本法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對하여는 ...
一、重要資材及産業의 國家管理
二、利潤의 公定
三、損失補償
一、勞働方面에서는 賃銀公定
二、勞働時間延長
...

滿洲國資金計畫 事業費의 壓縮斷行

【新京電】 産業五個年計畫第四年度인 本年度의 事業計畫遂行에 當해 必要한 資金計畫은 ... 今月末까지 어 提出하도록 通達하였다 그리고 事業計畫의 再編成方針의 具體的方針은 如左하여 이에 依하여 事業의 合理的 運營을 圖하고 ...
一、事業及諸經費를 節約하여 ...
一、當局에서 內示한 資材配定의 範圍內에서 事業計畫을 改訂할 ...
一、減少된 資金은 物資及勞務의 ...

小林鑛業新株拂込

小林鑛業의 小林本社 吸收合併은 七月末日로써 效力을 發生하고 同社의 資本金 ... 未拂込額五百廿五萬圓(一株에 卅七圓五十錢)을 徵收코로되었다 ...

京春鐵道에서 鐵道財團設定 近間社債發行

京春鐵道에서는 旣報와같이 鐵道財團을 設定하여 어 것을 擔保로 約二千六百萬圓의 同社債入을 計劃中인데 그 要項은 如左하다
一、發行額 一千萬圓以內
一、利率 四分七厘以下
一、期間 ... 一對一로 配定하고 月末부터 本社債의 募集은 殖銀을 通하여 ...

棉對滿輸出 協定또成立

合計一萬擔移讓!

【新京國通】 滿洲의 原棉不足對策으로서 朝鮮의 在庫棉의 入을 圖코자 産業部와 總督府 ... 一千萬圓以內 成立된 五千擔外에 五千擔移讓의 交涉이 成立되어 六月末까지에 京城에 赴하여 朝鮮總督府 ... 決定하였다

肥料配給窘塞一因 中央組合員無能 當局機構强化方針

鮮內에 있어서의 肥料事情 調節할수없고 그原因으로서 中央組合의 機構의 薄弱이 指摘되어 全般的으로 窘塞하여 地方에 따라서는 相當히 深刻한것 農林局에서도 强化策에 對하여 研究를 하고있다 ...

株式 更落後에 下澁

今日의 市勢 卅一日

前場低迷 今朝는 配當落 ...

今日財界 卅一日

◆米穀 (京城、公定價)		
正租(京城坊主)	一石	...
玄米(京城坊主)	一石	...
七分搗白米(小賣價)	一石	...
◆雜穀 (京城、卸賣價公定)		
大麥	一六〇斤	...
裸麥	一三〇斤	...
粟	一四〇斤	...
大豆	龍山三等	...
◆株 (單位十錢)		
朝新		...
東新		...
鐘紡		...
◆商品 (先限單位錢、圓)		
綿花		休會
綿布		休會
綿絲		休會

京城物價 卅一日

◆白米 ◆雜穀 ◆織物 ◆人絹織物 ◆本絹物 ◆燃料 ◆建築材料 ...

今日現株市勢 (正午調)

金利手形交換

對外爲替

英米 一百圓에 ... 以上朝鮮銀行賣

銀行券 三十日

海外經濟 三十日

株式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大阪短期 生絲 鰯油粕·麥粉 日本麥粉市勢

歐戰局透視難 後場反戾

現物續低

三國志 (201)

韓龍雲 譯 熊超 畫

徐庶 (七)

『갈이 바라건데 선생이 나를위하여 청하여오게 하소서』

『그사람은 청하여불수가 없나니 사군이 친히가서 구하소서 만일 그사람을 얻으면 주(周)나라가 강태공을 얻고 한나라가 장량을 얻은것과 같으리로다』

『그사람의 재주와 덕이 선생에게 비하면 어떠하오』

『나에게 비유하면 용렬한말을 기린에게 비하는것가트며 까마귀를 난새나 봉황에게 비하는것가트리라 그사람이 일찌기 스스로 관중(管仲)、악의(樂毅)에게 비기나 나로써 보건데 관중 악의도 그가 쫓지못하리라 그사람은 천하를 경륜하는 재주가 잇나니 대개 천하에 한사람뿐이로다』

『그사람의 성명이 누구요』

『그는 낭야양도(瑯琊陽都)사람이니 성은 제갈(諸葛)이오 이름은 양(亮)이오 자는 공명(孔明)이니 한나라 사예교위제갈풍(諸葛豐)의 후손이라 그아버지의 이름은 규(珪)요 자는 자공(子貢)이니 태산군승(泰山郡丞)이되엇다가 일찌기 죽으매 공명이 그아자비 현(玄)에게 의지하더니 현이 형주 유경승과 친분이잇서서 거기로가매 공명이 그 양양에서 살더니 현이 죽으매 그아우 제갈균(均)으로도 더부러 몸소 남양(南陽)에서 밭갈며 항상 양보음(梁父吟)을 조하하며 그 집근처에 한 뫼뿌리가 잇는데 이름이 와룡강(臥龍岡)이라 그로인하여 호를 와룡선생이라하는데 그사람은 대에 고히진 기이한 재주라 사군은 급히 가서 그사람을 보소서 만일 그사람이 도으면 어찌 천하를 정하지 못하릿가 근심하리오』

면 어더도 가히 천하를 안히하리라 하더니 어제 말하는 사람이 복룡이나 봉추가 아니냐』

『봉추는 양양의 방통(龐統)이오 복룡은 제갈공명이로다』

현덕이 기뻐하여 말하되 『오늘에서야 바야흐로 복룡봉추라는 말을 알앗노다 크게 어진이가 다만 눈아페잇슴을 어찌 기약하엿스리오 생의말이 아니더면 나는 눈이잇서도 소경과 가틀번하엿도다』

시 현덕을 작별하고 말을채처 서서가 공명을 천거한뒤에 다시 현덕이 서서의말을 듯고 사

『내가 무슨연고로 여기를 왓느뇨』

『근자에 선야에서 유예수들섭기다가 어머니의 편지를 보옵고 밤을도아 왓나이다』

어머니가 발연히 크게노하여 책상을치며 꾸짓되

『네가 강호에 돌아다니기가 여러해가 되는고로 배웟서나 어섯나 하엿더니 어찌 도리어 처음만도 못하게 되엿느뇨 네가 이미 글을 읽엇스니 응히 충성과 효도를 돗다 온전하지 못할것을 알것이라 조조는 임금을 속이고 윗을 업는여기는 역적이오 유현덕은 어질고 의로움이 사해에퍼젓스며 또한 한나라의 종친이라 네가 이미 섬겻스면 그 주인을 어덧거늘 한창의 거짓편지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드디어 밝은데를 버리고 어두운데로 와서 스스로 악한이름을 취하느뇨 진실로 미련한 저어미로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너와더부러 서로보리오 네가 조상을 욕되게 하며 보지의 하늘과땅 새어에 용납하겠다』